

계류

게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해양생물 중 하나이며 어부들에게는 커다란 수익원입니다. 구시로는 홋카이도 동해안에서 가장 큰 어항이며 북태평양, 오헬츠크해, 베링해 및 홋카이도 동부의 근해에서 게를 잡고 있습니다.

왕게(학명: *Paralithodes camtschaticus*)는 겨울의 귀중한 해산물입니다. 왕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게 중 하나로 게의 등딱지는 최대 25cm에 이르고 다리 길이는 약 1m에 달하기도 합니다. 왕게와 하나사키게(학명: *Paralithodes brevipes*)는 왕갓과의 모든 종의 게와 마찬가지로 집게가 있는 다리를 포함해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생물 분류학상 게는 10개의 다리를 가지기 때문에 왕갓과의 게들은 생물 분류학상 게로 분류되지 않으며, 소라게에 더 가까운 종으로 생각됩니다. 하나사키게는 구시로 동쪽 네무로반도의 하나사키라는 마을에서 잡히기 때문에 그 지명을 따서 하나사키게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

털게(학명: *Erimacrus isenbeckii*)는 가을에 구시로와 네무로 앞바다에서 잡힙니다. 털게는 다리를 10개 가지고 있어 게로 분류됩니다. 털게라는 이름은 등딱지를 덮고 있는 부드러운 가시가 털과 비슷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.